



2018년 4월 22일(제872호)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공짜 좋아하디니 양치기 개가 되었네

첫영성체를 받기 전, 어머니를 따라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어린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성물방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상본은 최고로 멋졌습니다. 가격도 200원인가 해서, 욕심 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물방 담당 수녀님께서 오시더니, 신학교 간다고 약속하면 그걸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공짜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덜컥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불공족한 사발에 장자의 권리를 넘긴 에사우처럼 말이죠. 이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최초의 성소인데, 공짜로 시작된 성소였습니다.

시작이 공짜여서 그랬을까요? 제 성소의 길은 매우 순탄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간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것 없어도 칭찬받고, 다른 친구들보다 간식도 하나 더 받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Free'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세례가 신자의 완성이 아니듯이, 서품도 사제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 저는 신부가 될 만한

재목도 아니고 신부가 된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공짜로 시작된 성소라, 신부도 공짜로 되었다고 할까요. 그저 하루 빨리 밀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소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는 샴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제게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사실 그 어떤 사제가 예수님 같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겠느냐마는, 적어도 샴꾼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사제들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옆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양치기 개’(dog)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신부는 양치기 개가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샴꾼은 목자가 없어도 되지만, 양치기 개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양들을 보호하는 개가 된 이들, 또 개가 되려는 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개들과 강아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임재혁(스테피노) 신부  
백골(육군 제3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4,8-12  
**회 답 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제 2 독 시** 1요한 3,1-2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11-18  
**영 성 제 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진리를 살다

전례의 중심이 제대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례를 하지 않을 때는 감실이 성당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실 안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성당이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왜 교도권이 감실을 가능한 한 경당에 따로 모시라고 권고하는지 생각한다면 별로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실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것은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기 위함인데, 제대는 바로 그러한 파스카 신비의 상징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가 언제나 우리 신앙의 중심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실 자체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실 때문에 제대의 중요성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감실의 위치를 현명하게 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성당 건축의 책임자들에게 드리는 제언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당의 구조가 신자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 전례가 이루어지는 제대와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해야

# 제대와 감실의 관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실을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제대와 감실 사이에서 혼동을 겪지 않도록 감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실을 성당과 통하는 다른 공간, 말하자면 지하나 성당 밖의 별도의 장소에 마련할 수 없다면 성당 안의 다른 장소, 제대 근처에 감실을 마련하여 사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미사 중 성체를 가지러 가거나 남은 성체를 다시 갖다놓을 때 불편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성당 안의 넓은 공간 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의 경당에서 더 쉽게 성체 조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성당은 감실이 모셔진 이상적인 경당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구대교구 안에서는 죽전성당을 대표적인 범례로 들 수 있습니다.

성당을 지을 때 감실을 위한 경당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회의실과 각종 목적의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쓰는 신경을 감실 경당 마련에 약간만 기울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균형 잡힌 것이 되지 않을까요?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난 키우기

탈색되고  
마른 것들은  
잘라 주어야 한다.  
가끔 정리가 필요하지.  
그게 난 뿐 이겠는가.  
우리 내 삶 역시.  
그렇게 정성을 드러  
나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지.

상화이야기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



로베르 캉팡(1375-1444)  
1424년 작, 패널 위 유화 29 X 46 cm  
필리델피아 미술관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가슴에 달린 장식물을 자세히 보면, 유리(거울)가 그려져 있고, 그곳에 반사된 장소에, 관객이 위치한다.

관객의 눈높이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주시는 성모님을 그리고 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그리고 정교하게 그린 이 그림 속 예수님은 우리의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며,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렇게 이 그림은 조용한 관조와 묵상을 이끌어내는 그림으로, 그분께 한걸음 나아가게 돕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요한 14,12)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정통오리정 권호섭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4월 22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4월 2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준·부사관 격려 방문  
    때·곳: 4월 25일(수) 18:00, 육군부사관학교

◆ 신임 군중수녀 오리엔테이션

    때 : 4월 27일(금)  
    곳 : 군중교구청

“군 복음회, 반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